

불화 가운데서의 삶

롬 14:1-15:13

by The Reverend Frances Taylor Gench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사도바울의 마지막 권유는 불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에게 쓰여진 것으로 논쟁적인 의견들이 교회의 일치와 안정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무엇에 관하여 그들은 논쟁을 하는 것인가? 로마의 가정교회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적합한 반응은 어떤 것일까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이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 교회들에게 전하려는 바울의 주된 요점은 “사람들의 전통적인 면에서 크리스찬들을 깊이 분열시키는 것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분열시키는 것을 허락해서는 아니되는 중요치 않은 것들이다”¹ - 논쟁하는 당사자들에게 분명히 아주 소중해 보이는 것들이 바울의 시각에서는 믿음이나 구원을 위하여 전혀 필요없는 것이다. 바울은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복음에 반응하는 방법의 차이점에는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그가 보는 문제는 한 무리가 기독교 믿음과 삶에 있어서 그들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 강요하려는 것이다.

Note: 바울은 “무엇이든지 괜찮다”라는 논리를 펴는 것은 아니다. 그가 했던 여러 다른 곳에서의 말씀(예: 고전 5)을 우리가 아는대로 크리스찬의 행동에는 한계들이 있다. 그러나 로마서 14-15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은혜라는 틀 안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다는 것으로, 그 의미는 복음에 대한 적합한 반응에 관하여 차이와 불일치를 안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공동체 안에는 포용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²

로마 교회의 상황은 항상 논란거리가 된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실제적인 것 보다는 가상적인 상황에 대하여 말을 한다고 주장하며, 로마서 14:1-5:13은 그의 갈라디아와 고린도에서의 목회의 경험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반영을 - 초대 믿음의 공동체의 삶 속에서 대면하는 이슈들에 관한 일반적인 충고 - 표현하는 글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본문이 특수한 상황을 두고 쓰여진 글이라고 믿고 있다. 바울은 한번도 로마를 방문한 적은 없지만, 그곳에 있는 여러명의 신자들을 알고 있고(롬 16장), 그를 염려케하는 여러 가정교회들에 대하여도 많은 것을 들은바 있다. 그래서, 그는 편지 마지막의 상당한 부분을 로마 교회의 일치와 안정을 위협하는 - 바울 생각에는 이것이 복음을 타파한다고 믿었음 - 주된 사회적, 신학적 문제들에 관한 내용에 할애한다.

본문에 나오는 두개의 상반된 무리들은 “연약한 자”와 “강한 자”라는 명칭으로 분류된다. “연약한 자”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강한 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이며 상황을 바라보는 - 약한자들에게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관점 - 그들의 고정관념의 반영일 것이다.³ 바울은 이 “연약한”과 “강한”이라는 단어를 채택하고 분명하게 “강한 자”들의 신분을 밝힌다(15:1). 그러나, 좀더 공정하자면, “연약한 자”들은 다르게 표현 했었을 것이다. (그들은 어떠한 호칭을 사용했을까 알고싶은 생각이 든다.)

우리는 “연약한 자”와 “강한 자”에 관하여 무엇을 아는가? 그들은 음식과 마시는 것과 특정한 날을 지키에 있어서 아주 판이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처럼 보인다. 가장 핵심적인 논쟁점은 14:2 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또 다른 것이 14:5 에 나오는데: “혹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들의 분쟁의 핵심은 음식에 관한 양심의 가책과 특정한 거룩한 날을 지키는 것으로, 전통적인 유대의 민감한 시각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음식과 특정한 날에 관한 논쟁에 걸려있는 문제는, 전통이 유대인들의 유산에 있어서 소중한 부분이기때문에, 계속적으로 전통을 지켜나가느냐 하는 것이다.⁴

그러나 몇가지 단서가 필요하다. 한 가지는, 모세의 율법은 고기를 먹거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금하지 않았지만, 이방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음식에 관한 양심의 가책을 피하기 위하여 종종 음식의 금욕적인 생활을 하곤했다. 또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연약한 자”는 곧 유대인 크리스찬이고 “강한 자”는 곧 이방인 크리스찬이라고 가정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바울은 유대인 크리스찬이었지만 자신을 음식법을 지키지 않는 “강한 자” 중의 하나로 카운트 하며,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그 외의 다른 유대인 크리스찬도 같은 입장이었을 것이다. 약한 자 가운데는 의심의 여지없이 예전의 생활로부터 벗어나고 우상을 숭배하던 옛적 습관을 버리기를 원하는 채식주의를 고집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는 음식에 관한 처방과 특정한 날의 준수가 어떤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호소력있게 먹혀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종으로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의심할 것 없이 “강한”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강한” 이방인 크리스찬이 한쪽에 있었을 것이고, “약한” 유대인 크리스찬과 “약한” 이방인 크리스찬이 다른 편에 있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유대인” 혹은 “이방인” 이라는 단어를 14:1-15:6 까지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양쪽을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마지막 단원 (15:7-13) 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면서 등장한다. 그러나, 분열의 이면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의 긴장 - 로마서의 바탕에 깔려있는 긴장 - 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인 현실이 이러한 분열을 악화시켰을런지도 모른다. 로마의 초대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주후 49 년에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다 (유대인 크리스찬 포함).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이 54 년에 사라졌고, 로마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으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몇해동안 비어있는 사이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온 교회 - 예전과 다른 구성원과 기풍을 가진 - 를 찾았을 것이다. 돌아온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에 어려웠고 진정한 환영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다.⁵ 사실, 로마서 14-15 장에 나오는 주된 권유가 “서로 환영하라”는 것은 눈여겨 볼 만 하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으며, 그들은 따로 모이고, 같이 예배드리지 아니하며, 적대관계를 키워나가고 서로를 의심하였다. 이것이 역사적인 추측인 반면에, 많은 학자들은 유대 크리스찬의 로마 귀환과 유대인들이 주종을 이루는 가정교회와 이방인들이 주종을 이루는 가정교회 사이의 긴장이 로마서 14-15 장에 나오는 갈등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문학적 측면에서 볼 때, 로마서 14:1-15:13 은 바울이 로마의 크리스찬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위하여 도덕적인 내용의 논리를 펼친 12-15 장에 나오는 긴 도덕적 권유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12-15 장에 나오는 도덕적인 권유의 정점이며, 여러 각도에서 볼 때, 전체 편지의 결론이기도 하다. 전체 편지에서의 이 부분의 위치와 할애된 양은 로마의 교회와 바울이 이해하는 복음과 단체적인 예배에 있어서 필수적인 답을 갖는 자들에게는 진정으로 중요한 일이었다.⁶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단어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13:8) 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3:14). 이제 14 장에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 과 “사랑함”이 실제에서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본문 읽기

한 분에게 로마서 14:1-15:13 를 전체를 위하여 읽게 하고, 당신의 반응을 나누어 보시오.

토의와 묵상을 위한 질문들

- * 본문을 들으면서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어떠한 질문들이 나오는가?
- * 본문은 반복되는 언어를 아주 많이 사용한다. 반복을 통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들은 어떤 것인가? 당신의 언어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중요한 단어들이 어떤 것인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과 개념들

- “주”: 이 단어가 처음 11 절에서 10 번 나온다는 사실은 눈여겨 볼 만 하다. 예수님의 주되심은 본문의 핵심적인 강조점이며 전통과 습관의 담을 뛰어넘어 일치를 위한 이유가 되기도 하다.
- “받으라” (Welcome): 이 권면의 핵심적 임무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과의 연관성을 주의해 보라.
- 15:1 의 번역을 비교해 보라 - 예를 들어, NRSV 는 “We who are strong ought to put up with the failings of the weak.” 그러나 헬라어 ‘바스타제인’ 은 단순하게 서로 “참거나” “견디라”는 의미 보다는 서로 “짐을 지거나” “지지하라”는 뜻이다. 더욱이, 바울은 “약함”이 “실패”라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좀더 문자적인 번역은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의 짐을 서로 지고” 혹은 “힘이 없는 사람들의 약함을” 것이다. Revised English Bible 은 15:1 을 “우리중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순진한 양심을 우리의 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전하고 있다.

- “판단과 멸시와 정죄”: 생활 양식에서의 다양성은 바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이 다양성을 대하는 크리스찬의 자세를 걱정하고 있다.

* “약한 자”와 “강한 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리스트를 만들어라.

양측 둘다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충성을 드렸다: 양측 다 하나님을 존경하며 감사를 드린다; 양측 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나눈다; 양측 다 서로를 향한 의무가 있다; 양측 다 매일의 삶에서 크리스찬의 순종에 관한 신념이 믿음의 공동체를 혼란시킬 수 있는 위험에 있다. 바울이 “약한 자”들이 예수의 부활과 주 되심으로 불리우는 믿음의 내용을 약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의 포인트 - 연결과 떨어짐 -를 오늘 본문과 장로교인들이 겪고있는 갈등 사이의 어디서 발견하는가?

* 바울은 상당히 현대적인 심리학적 통찰을 보여준다. 유명한 신약학자인 제임스 던 (James D. G. Dunn) 과 루크 티모티 존슨 (Luke Timothy Johnson) 로부터 인용된 다음 두개를 생각하고 당신의 응답을 나누도록 하라.

로마의 크리스찬 공동체의 위협은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두개의 근본주의자들의 충돌로서, 구조적인 전통과 전례의 근본주의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유의 근본주의자들이다. 이 충돌의 증상은 분명하다. 첫번째 증상은 서로가 받아들이고 환영하기를 꺼려하는 것이다. 두번째 증상은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자세이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14:3). 언어가 아주 강하며 그룹 갈등의 심리를 꿰뚫는 바울의 통찰을 보여준다. 크리스찬의 역사에서 반복되는 경험은 우리를 기억나게 하는데, 크리스찬의 자유를 지키는 근본주의자들은 “강한 자”들이 보기에 편협한 양심을 가진 자들을 멸시하기 쉬워진다. 마찬가지로 전통을 따르는 근본주의자들은 좀더 자유로운 사람들이 크리스찬 전통과 신분을 버렸다며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워진다. (James D. G. Dunn)⁷

바울이 밝히고 있는 자세는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며, 아니면 의도를 지닌 공동체에는 지속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보수주의자들이 법에 따라 서약을 하고 진보주의자들을 판단하거나, 자유 안에서 영광을 돌리는 진보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들을 오만하다고 하는 세상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Luke Timothy Johnson)⁸

* 왜 분열 가운데 사는 문제가 바울에게는 그렇게도 소중한 문제인가? 왜 로마 교인들 사이의 갈등이 복음을 무너뜨릴 위험이라고 그는 생각했는가?

바울의 의견에는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위해서 살리신 인간의 일치에는 한 가지가 걸려있다.⁹ 사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일치이며, 구약 전체의 4 군데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 에서 인용된 부분이 우리를 기억시켜 주는 것 처럼,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롬 15:7-13). 그 일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오늘 현실로 다가와야 한다.¹⁰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일치를 유지함은 “교회 내에서 말다툼과 엇짚은 것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다. 그것은 한 주를 향한 소중한 크리스찬 증거의 한 부분이다.”¹¹ 바울은 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같이 산다는 것을 이러한 큰 그림과 연결시켜 다시 생각하기를 원한다: “그는 공동체 안에서의 교화와 변화의 패턴을 한가지로 그리는데, 교인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주고 자신을 비우는 하나의 패턴으로 살 수 있게끔 하는, 메시아 예수와 그의 패턴이며, 세상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의 패턴이다.”¹²

- * 로마제국의 수도에 거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쓰여진 본문은 정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만약 예수가 주라면, 가이사는 아니다. 바울은 가이사의 코 앞에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예수를 주로서 충성을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다. 신약학자 N. T. Wright 의 다음의 글을 읽고 반응들을 나누기 바란다.

세속적인 가이사에게는 주변 세상의 사회적, 도덕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인 분열로 구체화되는 교회는 전혀 도전이 되지 못하였다. 열방의 대표들이 연합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주님께 예배할 때, 가이사는 마침내 세상에는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가 “자신으로” 남아있고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불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한 주님께 대한 불충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이사 (세속) 의 복음을 도전해야 하는 선교의 실패를 피하는 것이 되고 만다. (N. T. Wright)¹³

- * 바울은 크리스찬들이 서로를 향하여 품고있는 자세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다. 당신은 그가 장려하고 깨우치는 자세를 어떻게 요약하겠는가?
- * 당신이 본문을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순결”이라는 시각으로 읽을 때에, 어떠한 통찰이 떠오르는가?
- * 로마서 14-15 를 읽고 대화하면서, 어떠한 생각과 질문들이 떠오르는가?

¹ N. T. Wright, “The Letter to the Romans,”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X (Nashville: Abingdon, 2002), p. 749.

² Paul Achtemeier, *Romans*,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1985), p. 217.

³ Philip F. Esler, *Conflict and Identity in Romans: The Social Setting of Paul’s Letter* (Minneapolis: Fortress, 2003), pp. 341, 343

⁴ James D. G. Dunn,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Grand Rapids: Eerdmans, 1998), p. 682.

⁵ Dunn, pp. 683-84.

⁶ Dunn, pp. 680-81.

⁷ Dunn, p. 686.

⁸ Luke Timothy Johnson, *Reading Romans: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New York: Crossroad, 1997), p. 199.

⁹ Achtemeier, p. 221.

¹⁰ Achtemeier, p. 225.

¹¹ Wright, p. 739.

¹² Johnson, p. 203.

¹³ Wright, p. 750.